

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

(2012년 상반기)

2012. 8. 3.

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

해 외 투 자 분 석 팀

목 차

요 약	II
I. 개 요	1
II. 지역별 동향	2
III. 업종별 동향	6
IV.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	9
V. 기 타	10

< 요약 >

□ 2012. 상반기 총 해외직접투자(실행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 전반기 대비 14.4% 감소한 112.7억 달러 시현

-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와 대양주, 업종별로는 제조업, 광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심 투자

【 지역별 】

□ 아시아와 대양주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북미와 유럽은 감소세

- 아시아는 제조업, 대양주는 광업을 중심으로 각각 5.0%, 81.5%의 증가를 보인 가운데 북미 -47.6%, 유럽 -44.2%, 중동 -23.9%로 감소세,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증가세

※ 아시아(50.1억 달러), 북미(18.6억 달러), 대양주(15.6억 달러), 중남미(13.4억 달러)

【 업종별 】

□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증가세인 반면, 광업, 도매 및 소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은 감소세

- 제조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는 각각 23.4%, 180.7% 증가하여 비중이 각각 35.1%, 7.3%에 달함.
- 광업 투자는 13.2% 감소로 에너지 공기업 투자(23.8억 달러)의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가 주요인

※ 제조업(39.5억 달러), 광업(34.7억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8.2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6.7억 달러)

【 투자기업규모별 】

□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

-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하여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3.4%에서 80.8%로 축소

【 투자규모별/지분율별 】

□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

- 금반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0.9%를 차지하여 전년동기(47.9%) 대비 감소

□ 지분율 100%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

- 한국측 지분율이 100%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6.8%에서 금반기 75.6%로 소폭 감소

I. 개 요

- 2012. 상반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124.2억 달러 대비 9.3% 감소, 전반기 131.7억 달러 대비 14.4% 감소한 112.7억 달러, 신규법인수는 전년 동기의 1,459개에서 15.9% 감소, 전반기의 1,286개에서 4.6% 감소한 1,227개를 시현
-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아시아가 5.0% 증가, 북미는 -47.6%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4% 증가한 반면, 광업은 -13.2% 감소 시현

<표 1>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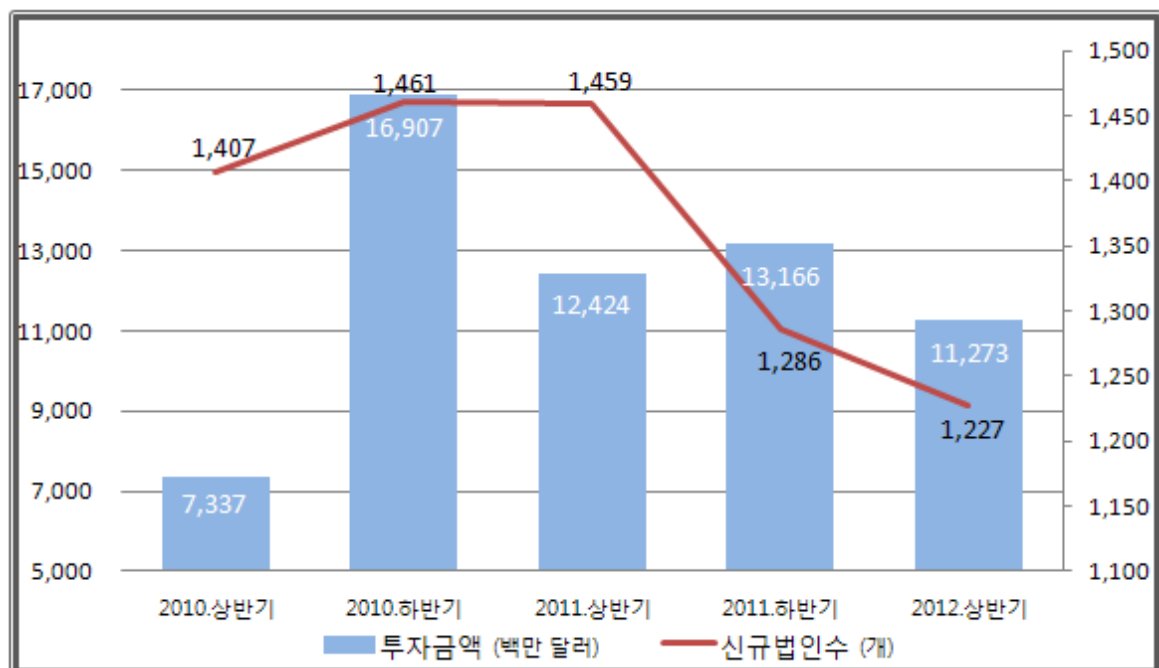
구 분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하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전체	24,245	2,868	25,590	2,745	12,424	1,459	13,166	1,286	11,273	1,227
(증감율)	19.3%	15.7%	5.5%	-4.3%	69.3%	3.7%	-22.1%	-12.0%	-9.3%	-15.9%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 금반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44.5%), 북미(16.5%), 대양주(13.9%), 중남미(11.9%), 유럽(10.5%) 순이며, 업종별 제조업(35.1%), 광업(30.8%), 부동산업 및 임대업(7.3%) 순

<그림 1>

최근 5반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실행 기준)



※ 금반기 투자 상위 국가(억 달러) :

미국(15.4), 호주(15.1), 중국(14.7), 필리핀(8.8), 브라질(7.4)

※ 금반기 투자 상위 투자자(억 달러) :

A사 (15.4), B사 (8.5), C사 (5.9), D사 (5.9), E사 (3.9)

※ 금반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억 달러) :

B사 필리핀 현지법인 (8.5)

A사 호주 현지법인 (7.5)

C사 미국 현지법인 (4.9)

E사 중국 현지법인 (3.9)

F사 스페인 현지법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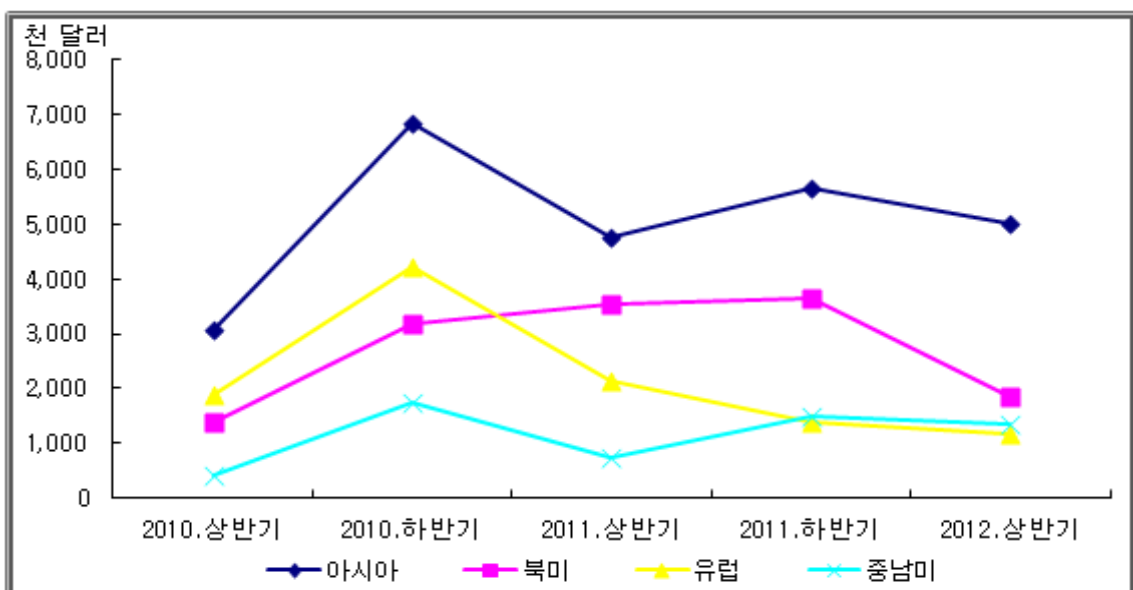
II. 지역별 동향

1. 개관

-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대양주, 중남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0%, 81.5%, 76.3%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북미, 유럽은 각각 -47.6%, -44.2%로 감소세

<그림 2>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4.5%, 북미 16.5%, 대양주 13.9% 순이며,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4.9% 차지
 -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38.4%, 28.6%, 17.1%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4.2% 차지
-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14.7억 달러), 필리핀(8.8억 달러), 북미는 미국(15.4억 달러), 대양주는 호주(15.1억 달러)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
-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26.1억 달러)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5.5억 달러), 북미는 광업(11.5억 달러)과 제조업(2.7억 달러), 대양주 광업(14.0억 달러)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7억 달러) 중심으로 투자

<표 2>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아시아	6,678	1,579	9,924	1,917	10,440	1,858	4,775	957	5,014	817
(비중)	32.9%	63.7%	40.9%	66.8%	40.8%	67.7%	38.4%	65.6%	44.5%	66.6%
(증감율)	-42.9%	-42.6%	48.6%	21.4%	5.2%	-3.1%	54.9%	1.1%	5.0%	-14.6%
북미	5,998	535	4,601	552	7,196	460	3,559	271	1,864	235
(비중)	29.5%	21.6%	19.0%	19.2%	28.1%	16.8%	28.6%	18.6%	16.5%	19.2%
(증감율)	14.1%	-33.8%	-23.3%	3.2%	56.4%	-16.7%	153.9%	4.6%	-47.6%	-13.3%
유럽	5,327	131	6,117	152	3,524	155	2,128	83	1,186	58
(비중)	26.2%	5.3%	25.2%	5.3%	13.8%	5.6%	17.1%	5.7%	10.5%	4.7%
(증감율)	57.2%	-33.2%	14.8%	16.0%	-42.4%	2.0%	13.0%	1.2%	-44.2%	-30.1%
중남미	1,041	89	2,138	94	2,257	108	759	62	1,339	52
(비중)	5.1%	3.6%	8.8%	3.3%	8.8%	3.9%	6.1%	4.2%	11.9%	4.2%
(증감율)	-50.5%	-3.3%	105.3%	5.6%	5.6%	14.9%	88.0%	47.6%	76.3%	-16.1%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2. 지역별 동향

가. 아시아

- 투자금액 50.1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 신규법인수는 14.6% 감소한 817개
- 국가별로는 중국(14.7억 달러), 필리핀(8.8억 달러), 홍콩(5.6억 달러), 일본(4.1억 달러), 베트남(4.0억 달러) 순, 중국 투자비중 29.3%
 -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 '09년 32.5%, '10년 36.5%, '11년 34.2%, '11. 하반기 30.2%, '12. 상반기 29.3%

- 업종별로 제조업(26.1억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5.5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3.8억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1억 달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0억 달러) 순, 제조업 투자비중 52.1%
-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 '09년 40.9%, '10년 53.8%, '11년 53.5%, '11. 하반기 57.2%, '12. 상반기 52.1%
- 주요 투자 사업
 - B사의 필리핀 제조업 투자 : 8.5억 달러
 - E사의 중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 3.9억 달러
 - G사의 일본 도매 및 소매업 투자 : 1.2억 달러

나. 북미

-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7.6% 감소한 18.6억 달러 기록, 신규 법인수는 13.3% 감소한 235개 기록
- 국가별로는 미국(15.4억 달러), 캐나다(3.2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11.5억 달러), 제조업(2.7억 달러), 운수업(1.1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0.9억 달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7억 달러)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61.8%, 제조업은 14.4% 차지
- 북미 광업 투자비중 : '09년 50.3%, '10년 27.7%, '11년 44.1%, '11. 하반기 51.3%, '12. 상반기 61.8%
-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 '09년 11.8%, '10년 7.9%, '11년 7.2%, '11. 하반기 8.6%, '12. 상반기 14.4%
- 주요 투자 사업
 - C사의 미국 광업 투자 : 4.9억 달러
 - A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 1.4억 달러
 - H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 0.9억 달러

다. 유럽

- 유럽의 금반기 투자금액은 11.9억 달러, 신규법인수는 58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44.2%, -30.1%를 기록

- 국가별로는 스페인(3.3억 달러), 네덜란드(1.9억 달러), 프랑스(1.4억 달러), 영국(1.3억 달러), 독일(1.1억 달러) 순으로 투자
- 업종별로는 제조업(3.6억 달러), 건설업(2.7억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1.5억 달러), 광업(1.3억 달러)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 비중은 30.4%, 건설업 비중은 22.7%
 -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 '09년 17.0%, '10년 15.7%, '11년 17.2%, '11. 하반기 24.1%, '12년 상반기 30.4%
 - 유럽지역 건설업 투자비중 : '09년 1.0%, '10년 0.1%, '11년 2.6%, '11. 하반기 2.5%, '12년 상반기 22.7%
- 주요 투자 사업
 - F사의 스페인 건설업 투자 : 2.0억 달러
 - I사의 프랑스 제조업 투자 : 1.0억 달러
 - J사의 영국 제조업 투자 : 0.7억 달러

라. 중남미

- 금반기 투자금액은 13.4억 달러, 신규법인수는 52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76.3%, -16.1%를 기록
- 국가별로는 브라질(7.4억 달러), 케이만군도(1.7억 달러) 순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6.4억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2.6억 달러) 순
- 주요 투자 사업
 - K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 1.4억 달러
 - L사의 브라질 금융 및 보험업 투자 : 1.0억 달러
 - M사의 브라질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 0.4억 달러

마. 기타

- 전년동기 대비 대양주 81.5%, 아프리카 5.4%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동은 -23.9% 감소
- 주요 투자 사업
 - A사의 호주 광업 투자 : 7.5억 달러
 - D사의 호주 광업 투자 : 1.8억 달러
 - H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 1.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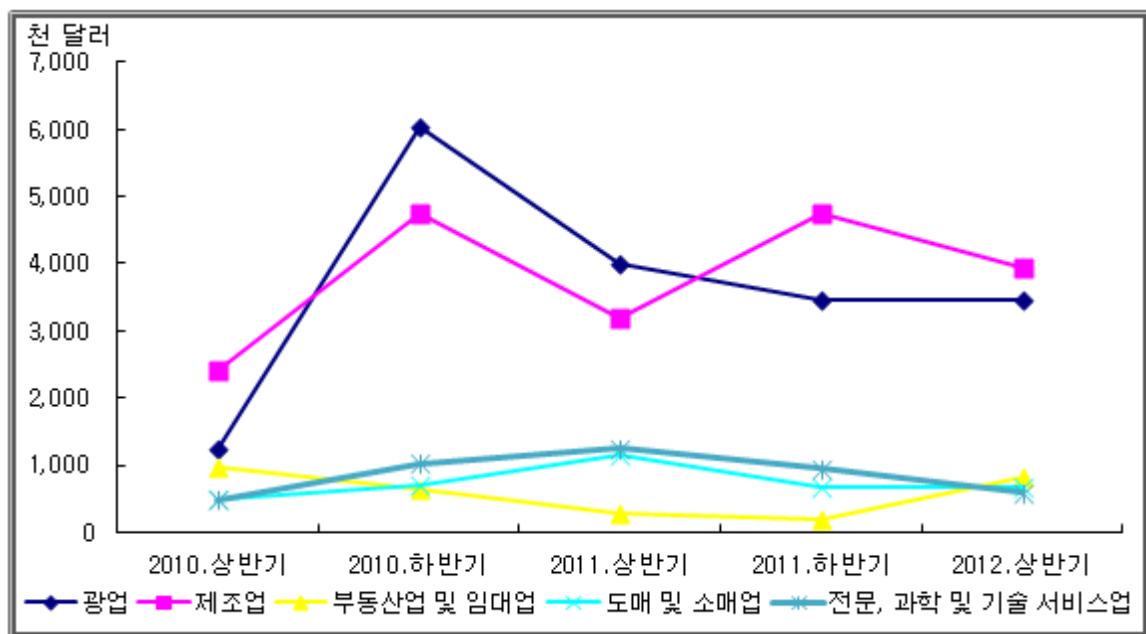
Ⅲ. 업종별 동향

1. 개관

-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7%, 건설업 58.9%, 제조업 23.4% 증가세, 금융 및 보험업 -69.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7%, 도매 및 소매업 -41.6%, 광업 -13.2% 등은 감소

<그림 3>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 35.1%, 광업 3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7.3%, 도매 및 소매업 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 순을 기록하여 제조업이 가장 큰 투자 비중 차지

· 제조업은 중국(8.8억 달러), 필리핀(8.7억 달러), 브라질(4.8억 달러), 베트남(2.5억 달러) 순, 광업은 호주(13.8억 달러), 미국(9.2억 달러), 캐나다(2.3억 달러), 말레이시아(2.1억 달러) 순

· 제조업 투자비중 : '09년 22.4%, '10년 29.4%, '11년 31.1%, '11. 하반기 36.0%, '12년 상반기 35.1%

· 광업 투자비중 : '09년 26.8%, '10년 30.1%, '11년 29.2%, '11. 하반기 26.4%, '12년 상반기 30.8%

<표 3>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제조업	4,548	847	7,139	1,118	7,949	1,062	3,204	568	3,952	437
(비중)	22.4%	34.2%	29.4%	39.0%	31.1%	38.7%	25.8%	38.9%	35.1%	35.6%
(증가율)	-35.8%	-39.3%	57.0%	32.0%	11.3%	-5.0%	33.4%	4.2%	23.4%	-23.1%
광업	5,440	67	7,295	53	7,464	48	3,994	23	3,468	24
(비중)	26.8%	2.7%	30.1%	1.8%	29.2%	1.7%	32.1%	1.6%	30.8%	2.0%
(증가율)	32.9%	-38.5%	34.1%	-20.9%	2.3%	-9.4%	218.2%	-4.2%	-13.2%	4.3%
금융 및 보험업	2,001	48	3,261	63	3,429	67	1,564	34	485	20
(비중)	9.8%	1.9%	13.5%	2.2%	13.4%	2.4%	12.6%	2.3%	4.3%	1.6%
(증가율)	-7.3%	-41.5%	63.0%	31.3%	5.2%	6.3%	168.6%	21.4%	-69.0%	-41.2%
도매 및 소매업	1,795	528	1,201	661	1,815	616	1,142	351	667	282
(비중)	8.8%	21.3%	5.0%	23.0%	7.1%	22.4%	9.2%	24.1%	5.9%	23.0%
(증가율)	-52.1%	-33.2%	-33.1%	25.2%	51.1%	-6.8%	130.2%	5.7%	-41.6%	-19.7%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2. 제조업

- 금반기 제조업 투자는 39.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4% 증가, 신규법인수는 437개로 23.1% 감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9.5억 달러)과 1차 금속 제조업(5.6억 달러) 투자 증가(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4.5%, 41.8%)가 주요인
- 국가별로 중국(8.8억 달러), 필리핀(8.7억 달러), 브라질(4.8억 달러), 베트남(2.5억 달러), 미국(2.4억 달러) 순으로, 아시아 지역(26.1억 달러)이 66.1% 차지
 -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 '09년 60.1%, '10년 74.8%, '11년 70.2%, '11. 하반기 68.2%, '12년 상반기 66.1%
- 투자금액 비중은 35.1%, 신규법인수 비중은 35.6%로, 법인당 투자금액이 업종 평균치에 가까우며 점차 증가추세임.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9.5억 달러), 1차 금속 제조업(5.6억 달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5.4억 달러),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5.1억 달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0억 달러) 순으로 투자

3. 광업

- 금반기 중 투자는 34.7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3.2% 감소, 신규법인수는 24개로 4.3% 증가
 - 에너지 공기업 투자 감소(23.8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29.7%)가 주요인
- 국가별로는 호주(13.8억 달러), 미국(9.2억 달러), 캐나다(2.3억 달러), 말레이시아(2.1억 달러), 마다가스카르(1.4억 달러)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3.2%, 40.5% 차지
 - 북미 지역 투자비중 : '09년 55.4%, '10년 17.4%, '11년 42.6%, '11. 하반기 53.7%, '12년 상반기 33.2%
 -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 '09년 4.7%, '10년 5.5%, '11년 16.9%, '11. 하반기 14.0%, '12년 상반기 40.5%
- 신규법인수 비중(2.0%)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30.8%)이 상대적으로 큰 바, 법인당 투자규모가 대형화
-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28.2억 달러) 투자비중이 81.4%, 금속 광업(5.3억 달러)이 15.4% 차지

4. 금융 및 보험업

-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4.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9.0% 감소, 신규법인 수는 20개로 전년동기 대비 41.2% 감소
 - N사의 금융업 전년동기 투자실적(10.9억 달러) 대비 금반기의 실적 없음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지역별로는 아시아(1.9억 달러), 중남미(1.9억 달러), 대양주(0.5억 달러) 순으로 투자

5. 도매 및 소매업

-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6% 감소, 신규법인 수는 282개로 전년동기 대비 19.7% 감소
- 국가별로는 일본(2.0억 달러), 독일(1.0억 달러)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29.4%, 15.0%
-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3.9억 달러), 소매업(1.8억 달러) 순

IV.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

1. 개관

- 금반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로 비중 80.8%로 축소, 중소기업은 2.5% 증가, 비중 16.5%로 확대

<표 4>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대기업	16,688	282	20,136	375	20,502	363	10,362	173	9,108	144
(비중)	82.1%	11.4%	83.1%	13.1%	80.1%	13.2%	83.4%	11.9%	80.8%	11.7%
(증가율)	-1.9%	-27.3%	20.7%	33.0%	1.8%	-3.2%	90.9%	7.5%	-12.1%	-16.8%
중소기업	3,319	1,183	3,684	1,359	4,114	1,301	1,816	700	1,862	576
(비중)	16.3%	47.7%	15.2%	47.4%	16.1%	47.4%	14.6%	48.0%	16.5%	46.9%
(증가율)	-43.1%	-36.9%	11.0%	14.9%	11.7%	-4.3%	6.6%	3.1%	2.5%	-17.7%

*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

- 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80.8%인 반면, 신규법인수 비중은 11.7%에 그쳐, 대기업의 건별 투자금액(0.6억 달러)이 중소기업(3.2백만 달러) 대비 19.6배

2. 대기업

- 업종별로는 광업(32.5억 달러), 제조업(30.6억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5.5억 달러) 순으로, 광업 투자비중이 35.7%

· 대기업의 광업 투자비중 : '09년 26.1%, '10년 35.0%, '11년 74.3%, '12년 하반기 28.9%, '12년 상반기 35.7%

- 지역별로는 아시아(39.9억 달러), 대양주(14.8억 달러), 북미(14.4억 달러) 순

3. 중소기업

- 업종별로는 제조업(8.1억 달러), 부동산 및 임대업(2.7억 달러) 순으로 제조업 투자 비중이 43.3%

·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 '09년 44.2%, '10년 51.5%, '11년 51.5%, '12년 하반기 48.6%, '12년 상반기 43.3%

- 지역별로는 아시아(9.2억 달러), 중남미(4.0억 달러) 순

V. 기 타

1. 투자규모별

<표 5>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50만달러 이하	544	1,956	588	2,167	588	2,167	561	14,170	323	2,737
~200만달러 이하	941	285	1,052	380	1,052	380	987	914	561	515
~500만달러 이하	1,321	110	1,393	140	1,393	140	1,084	330	618	187
~1000만달러 이하	1,126	45	1,359	72	1,359	72	1,077	146	917	122
~5000만달러 이하	4,106	56	4,439	79	4,439	79	3,177	151	2,461	107
1억달러 이하	2,629	13	2,231	12	2,231	12	1,729	24	1,786	24
1억달러 초과	9,659	13	13,183	18	13,183	18	3,302	15	4,607	15

-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2.5%에서 금반기 37.7%로 증가,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47.9%에서 40.9%로 감소

2. 지분율별

- 한국측 지분율 100%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6.8%에서 금반기 75.6%로 소폭 감소

<표 6>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1. 상반기		2012. 상반기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10% 미만	430	21	306	17	178	13	87	8	140	6
~ 50% 미만	1,582	294	2,941	370	2,754	365	926	172	1,090	138
50%	657	84	192	103	687	94	469	56	299	55
~ 100% 미만	1,609	246	3,634	253	3,352	224	1,402	113	1,218	93
100%	16,049	1,833	17,172	2,125	18,618	2,049	9,541	1,110	8,527	935